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 宣 淳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混沌한中華政局
吳張의陰計

一

赤化防止를唯一한旗幟으로내세우고 國民軍을全滅한後滿蒙에서 樂天地의基礎를굿세게하는同時에 吳佩孚氏와寃을抹消하고 後患을豫防하기에熱中하는것이昨今의張作霖氏다 그가이와가치 消極的態度로中央政界를 吳佩孚氏에게미루는理由는故郭氏의謀叛으로體驗한深刻한自己反省에서 나온所使이겟지만은 如何間 只今張作霖氏의實力으로는 비록絶對한日本의後援이잇다할지라도그로는不足이太甚한現實로보아서 當然한成算이라고할것이다 그리하야 自己實力에符合하지아니한 權力慾을내는것보다도 自己實力에相應한奉天王의地位에滿足하고 그地盤이나鞏固히하는것이 最善한方策일지니 이것을實現하기爲하야 吳佩孚氏를쇠려가지고 國民軍에對抗식히는것이다

二

그러나國民軍이今日에잇서서비록 慘敗된觀이업지는아니하지만은 張作霖氏의實力으로는그것을全滅식히지못할것도分明하고 吳佩孚氏의힘으로도 勿論不可能한것이 嚴然한事實인以上張氏의便으로보면 吳氏가自己와完全히合致하야 國民軍을徹底히掃蕩하여바리기를 希望하겟지만은 吳氏의便으로보면 萬一自己가國民軍을全滅한後그實力이 能히張作霖氏의實力을 壓倒하기에充分하면그도無妨하니 張氏의意思대로하려니와吳氏의實力이 그에밋치지못하는以上 차라리現今에이루고잇는程度로 中央政界나自己의手中에너은後 國民軍과提携하야 以後張氏에게對하려고하는氣色이 여러가지로낫타나니 이것을보는張氏가 또한吳氏의意思로되는顏內閣에 여러가지어려운條件으로對하는것도 그비로는 発하지못할일이라고할것이라

三

그러하야張氏는 全部一任한다는吳氏에게對하야中央政界는 全部一任한다는것을말은하면서도顏內閣의成立을公然히妨害하고 價値判斷은別問題로할지라도 目下의形勢로보아서는顏內閣이 가장妥當性이豊富함을不拘하고 殆히自滅狀態에陷하야 顏內閣成立을發表한지 이미十數日이經過하엿지만는確實히就任한者가하나도업는怪現象을이르고잇스니 이것은分明히 張吳陰計에犧牲된것이라고할것이다 그럼으로現今事情으로는 張氏가北京에가기도어려운것은勿論이오 또한吳氏가北京에들어가기를躊躇하는것도無理가아니니 비록昨今吳氏의入京說이 자조잇스나그러나事實化하기에는 아즉도여러가지曲折을것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따라서現政局을收拾함에는 비록張吳의會見이實現된다할지라도 그로因하야即時에落着될것도아니오 오즉張氏吳氏의서로가지고잇는 陰計以上은政局安定을爲하야期於히變化가생기기前에는 엇더한政策上의提携를願한다하고熱心히政局을打開하는…

難題에不拘하고 審議着着進捗
◇……軍縮起草分科會

軍備縮少委員會의軍縮案起草分科委員會의廿四日會議에서는審議未了分을全部完了하엿슴으로二十五日은同起草分科委員會의報告中重要字句에關하야討議를行하기로되엿는데右報告書는準備委員會의總會議에提出할러인바起草委員等은各種難問題에逢着하엿슴에도不拘하고着着其審議를進行하엿슴에對하야크게滿足의意를表하며또起草分科委員會는各國各其防備軍費를討議하고同時에各國의承諾할軍備縮少의程度를決定하기爲하야聯盟理事會에對하야被侵略國援助에關한方法을決定하려하는諸提案을直時審議할것을要請하기로決하엿스며또起草委員會는聯盟規約第八條의規定에依하야聯盟國의軍費能力並軍事上의目的에强要할수잇는各工業의狀態에關하야各各情報交換機關을設置하자는白耳義提案을承認하엿더라 (제네바二十五日發)

地方的援助 特別機關問題
對侵略國隣接諸國의
◇軍縮案起草委員會

軍縮案起草委員會는다시聯盟規約의規定範圍內에서侵略國에對하야其隣接諸國이此에應援을與한다는地方的援助의特別機關을設함은聯盟規約의勵行을助하는것이아니냐하는提案을参考하기로決定하엿스며 … 提案을否決하엿더라 (제네바二十四日發)

對摩嬸和拒絶
佛首相의說述

… 佛國은 全然『크림』을無視하고各種問題에關하야各國의意見을알고하려한다고述하엿더라

前『우』國首相暗殺
猶太人殺戮命令의報復

巴里에서猶太人反對의新聞을發刊한『우크라이나』國務總理『페트류-라』氏는『사미유엘』이라는露國出生佛國歸化人에게暗殺되엿다그原因은『페트리류-라』가在職中多數의露國系猶太人殺戮을命令함에對한遺恨이라더라(巴里廿五日發)

國際的急務
大統領演說
全米赤十字大會서

『쿠-릿지』氏는廿五日全米赤十字會議에서演說하야左와如히述하엿더라 國際間의急務는各民族의協調와相互的諒解이다人類가無益의鬪爭을避하야如何히右를遂行할가하다하면國際關係는赤十字事業과如히協調力을增大할것이다云云 (華盛頓廿五日發)

上海馬線回復

五月十七日以來不通되든上海馬尼剌線은二十五日부터全通되엿슴으로長崎上海線經由의歐州行電報는常態로回復하엿다더라

床次本黨總裁
聯立正式拒絶
政策上提携도約束은不能
兩黨首會見內容

床次總裁는二十六日午前十時首相을訪問하고床次氏는目前交涉의憲本聯立內閣에對하야서는其後諸種考慮를거듭한바黨內의事情은贊意에應키難한點이잇서遺憾이나辭退하는수밧게업스나未安하나御諒承을乞한다고正式으로聯立組閣을拒絶함에對하야若槻首相은黨內의事情으로… 政策上의提携는미리具體的으로約束하기가조금困難함으로右間諸種政府의計劃施設을見한後에될수잇는대로希望에調하려한다고婉曲한措辭로써速하야如斯히兩黨首會見은約三十分으로終了하엿더라(東京電)

對研究交涉은
言明할수업다
◇若槻首相談

若槻首相은床次總裁와의會見을了한後如左히談하더라(東京電)

問題는이미落着
◇……床次總裁談

今朝의會見으로余는政局安定에對하야苦心하는點은잘推察하고또同感이나現狀으로는要求에同意치못하는것을遺憾으로思한다 然이나政局安定에就하야는余도相當히苦心하고잇슴으로將來相互努力하자고述하고이에對하야若槻首相은여러가지의事情이생각대로落着되지못함은甚히遺憾이지만는此亦無言이라고하엿다

日前床次氏와會見할時本黨의힘으로政局을安定하겟슴으로入閣하야國事에貢獻하여달나는請에對하야床次氏는廿六日來訪하야政府와가치政治의局에當할事는黨情其他로因하야不可能함으로本黨은現在狀態로나가겟다고回答하엿다그結果研究會와交涉을開始할與否는第二段의策임으로現在는何等考慮한바가업스니言明할수업다云云

第二計劃着手
憲研聯立을圖謀

床次總裁는畢竟二十六日若槻首相을會見하고憲本聯立을拒絶하엿슴으로首相은直時第二次計劃으로研究會의入閣을希望하고六月三日東宮殿下歸京外지에一切의手續을하야還啓同時에親任式을擧하려는意嚮으로써交涉을開始하게되엿다그리고當者인研究會가快히入閣에應할는지又는相當한迂餘曲折을經할는지不明하나結局은一名만研究會에서入閣者를出할듯한바其候補者로는靑木水野兩子說이잇스나水野子는絶對로入閣치안을듯하며靑木子亦是從來부터恒常入閣을忌避하는關係도잇서서亦是入閣할는지疑問으로右兩子以外의人物이入閣할듯하다그리고다시一名은當然히政友會에서入閣할것인바町田氏가農林으로早速農相이大藏에濱口藏相이內務에轉任되야改造成立을告할듯이觀測되더라(東京電)

靑木子에報告

二十六日의兩黨首會見에依하야憲本聯立內閣組織은不成立을告한바이에考慮를하고잇는듯하더라(東京電)

結局單獨
研究態度와 首相의意嚮

若槻首相은床次總裁의聯立組閣拒絶回答을受한과共히第二段計劃으로研究會의入閣을求하며同會最高幹部의意嚮을探한바去番來傳함과如히研究會의對政對熱은…

兩巨頭近近入京
國務院에達한確報

國務院에達한確報에依하면吳佩孚氏는二十六日漢口發로洛陽에들녀다시保定에一兩日滯在後入京하기로되엿스며張作霖氏도近近入京할터의通告가잇섯더라 (北京廿五日發)

張氏赴津期

張作霖氏와吳佩孚氏와의會見은畢竟確實하게되야張氏는二十七日頃赴津할터이라더라(奉天電)

楊氏就任

某處着電에依하면孫傳芳派의閣員으로顏內閣…

張氏就任
廿八日新閣議

張志潭氏는二十六日入京한바一兩日中에顧維鈞氏와同時에就任하야二十八日에는第一回의閣議를開할模樣이더라 (北京廿五日發)

本舞臺에進入?
奉露會議
『세』次長等來奉을機會로

露國交通次長『셀레부리아코프』氏『크스네쓰오프』氏外一名은二十五日午後一時奉天에到着한바此에依하야數日前부터開한奉露…

五、東鐵財政銀建
六、收入金保管
七、國境查定
八、職業同盟問題

完全한黨이 革命의推進器
胡氏、赤露視察報告
上海 趙 德 津

中國國民黨의要人으로써一時右派의首領이라는指目을밧든胡漢民氏는昨秋에赤露의事情을視察하기爲하야出發하엿다가近日에飄然히歸國하엿는데胡氏의歸國은中國前途에對하야만흔影響이잇는것이다…

研究會領袖 靑木邸에協議

小笠原伯 水野子會見 內容은重視

檀君論 (三)(一)
朝鮮을中心으로한 東方文化淵源研究
崔 南 善

三 王儉城神說의檢覈 (三)

義務敎育 年限延長斷行
◇……岡田文相의英斷

全國交通勞働 總聯合成立?
鐵道側도參加할貌樣

聯軍南口攻擊 一兩日中에開始?

廿五日定例閣議

鐵道省의 建設改良豫算

明年度豫算
稅整과關係 當然增五百萬圓

水利組合의 改正案
來年度에…

◇걸인의 잠을깨는자동차

慶北事件一段落 十四名만檢事局

═경북중대사건검사국으로송치 경찰은데이차로대활동을계속═

前後募金三萬餘圓

얼마전부터경북경찰부에서내용을극비밀에붓치고전국각디에엣치 유림을중심으로한 일대군자금모집사건에대하야 전후 오십여명의다수를검거하얏다함은루보한바어니와 그동안 데일차의단락을고하고 지난이십오일 서류와함께 십사명을 대구디방법원검사국에 송치하얏스며 그밧게다섯명은 무죄방면하얏다는데 마리고도의연히 대활동을계속중이라는바 사건의내용에 이르러 일즉이대요를보도한바 잇거니와 이제더상세한바를 듯는바에의하면 이사건의 수괴자성주군(星州郡)김○숙(金○淑)이 긔미운동당시 전국유림을 렴복식히어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그당시의 엄중한경계로 말미암아 완성을고하지못하고중국방면으로도러가고마럿든데 그의부하로 만흔회동하든뎡(鄭) 모는 내디에잇서 또다시 데이차계획의긔회를엿보고잇든남어지작년봄부터 전국유림이모히어 경성서곽모선생의문집(文集)을하노라함께 그긔회를리용하야 작년가을부터 데이차군자금을 모집하기시작한것이 데일차만폴청척을못내이고 팔각데모된 것이라는데 전후합하야 모집한군자금은약이삼만원에 달하리라 떠라(대구)

青陽에重大犯 경찰이대활동

지난이십삼일 오후열한시에 충남청양(靑陽)경찰서에서는주재소원까지 총출동으로읍내리(邑內里)야소교회뎐도사리필재(李弼在)외다섯사람을 데포하는동시에가택을 수색하엿다는데 그내용은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히알수업스나 모중대사건 관계인듯하다더라(청양)

圖們、天連絡鐵橋

軍事上重大視

도문과련도텰도의련락텰교 교통과군사상사명이중대해

국경(國境)두만강(豆滿江)에는 지금까지목교(木橋)를가설하야 련락을취하여왓슴으로불편이만한바 도문텰도(圖們鐵道)와텬도텰도(天圖鐵道)에서는 종성(鍾城)방면으로약일천척이나되는대텰교(大鐵橋)를가설할계획으로 금년여름부터 공사에착수하리라는데이텰교가완성되는때에는북조선(北朝鮮)과중국간도(間島)방면의련락은면목을일신케하리라하며 한편으로 국경경비(國境警備)의편리를보아조선총독부에서는 공사비를 보조하여주리라더라

運動競技

釜山鐵道優勝

選拔野球決勝

大每京城支局主催全鮮選拔野球大會의釜山對龍山의決勝戰은二十四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運動場에서釜山先攻으로開始하엿는데釜山鐵道軍第四回二點第五回一點合計三點入하엿슴에反하야龍山鐵道局軍은七回에僅히一點을入하엿슬뿐으로結局三對一로釜山軍이優勝하엿다(閉戰六時十分)

鳥羽選手勝捷

本年度데뷔쓰컵戰에出場코저渡米한鳥羽選手는二十三日『컨푸쓰바』選手權試合에出場하야『알바크』『윙펠드』兩選手를『스트레트』에서擊破하야『데쓰뷔컵』戰에出場할資格을得하엿다더라(維育發電)

芬蘭選手新記錄

芬蘭長距離選手눌미氏는三千米競走에八分二十五秒十分五七로走破하야世界新『레코―드』를作하엿다더라(伯林二十四日發電)

高工軍勝捷

九對三中央敗

高等工業軍對中央高普軍의野球試合은再昨二十五日午後五時부터京城運動場에서馬春植氏主審下에高工先攻으로開戰되엿섯는데畢竟은九對三으로高等工業軍이快勝하엿는데中央의敗因은平素의練習이매우不足한까닭인듯하더라

醫專學生大會

이십사일학생대회를개최

온건한태도로진정서데출

내용개선을 목뎍으로 문데를이르켜동요중이든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專)학생삼백여명은 지난이십사일 오후네시에 의전(醫專)데일강당에모히여협의회를로의한결과지하(志賀)교장에게진정서를 데출하엿다는데 그내용은온당한것이라더라

【學務局長談】 「전긔의전(醫專)문데에대하여서는요전에학생들의결의를보면동맹휴학을한다거나 혹은교수를밧지아니하거나하는일은업겟다고하엿스며당국에서도 그문데를 방금고려중이올시다 금번에 다시학생대회를 하엿다는것은 아즉무슨내용을 가젓는지 몰으겟슴니다」 하더라

共產黨極東大會

하바롭스크에서개최

해삼위(海蔘威)고려공산당극동위원회(高麗共產黨極東委員會)에서는 정당의개혁선뎐과 고려계통의사상단데 통일에 관하야 협의할차로 오월하순에 「하바롭스크」에서극동대회(極東大會)를개최하기로 결뎡하고각관계단데에서신과또는밀사를파견하야 그대회에출석하기를권유한다더라

裁判밧고辯護밧는 判事와辯護士

═판사、변호사、은행원등일곱사람 도박사건으로재판을밧게되여서═

【行員까지參加한紳士賭博公判】

작이십륙일오전에경성복심법원데칠호법뎡에서는 재판소의 전판사(判事)와서긔(書記)와변호사외여러사람들이도박을하엿다는사실로공판을바든사건이잇다

公州地方法院大田支廳元判事尹用燮(三○)(本籍京畿道廣州郡廣安面)▲大田郡大田面春日町二丁目辯護士(前判事)康永鎬(三九)▲大田支廳元書記楠瀨卓(三五)(本籍京畿道利川郡)▲京城瑞麟洞五六殖產銀行員安義根(三○)▲大田郡外南面大平里農業徐載鳳(三二)▲同面芙沙里農業閔應植(三[illegible])▲京城瑞麟洞五六殖產銀行員 宋在鳳(三二)

는그때 식산은행 대뎐지뎜에근무하며당시동군 외남면련효동(外南面連孝洞)에거주하든송재봉씨의집에서와 또한 동면대효리(大孝里)안의근씨의집등에서 「화투」를가지고한번오전내지일원식의 돈을대인후 「갑오」잡기라는노름을십수회나하엿다는사실로 불구속한대로 긔소되야공주(公州)디방법원에서 윤용섭 강영호 량씨와당해뎐은 각긔벌금일백오십원、안의근、권녕탁、송재봉세사람은 각긔 벌금칠십원、민경식、서재국두사람은각긔벌금오십원의 판결언도를 밧고 이를불복한후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야(당해뎐은복죄)전긔와가치공소공판이열닌것이라더라

飲食먹기내기

═돈딸목뎍은아니엇다═

피고들의공술

동일곱사람은 대뎐춘일뎡 이뎡목에서소외정신료법(精神療法)을한다는당해뎐(張海電)과가치 작년 십월이십일부터 동년십일월삼십일까지의동안에전긔춘일뎡 강영호씨의집에와 또이모말매암아 전긔판사 윤용섭

관(依願免本官)까지되엿는데 공판당일 피고들은 각기말쑥말쑥한양복들을입고 출뎡하야 말광(末廣)재판장의 심리아래 자긔네들은 모다돈을 따먹자고 현금을대이고 도박한사실은업고 단배혹은 그밧게 음식가튼것을 사먹으라고 노름을한사실은 잇는데 자긔네들이 이가치 법뎡에까지 서게된것은 당해뎐이와 사이가조치못하야 당해뎐이 가원혐으로 자긔네들을 부러 너흔것이라고 답변하엿다 더욱히 당해뎐은 전에도 도박법으로 한번검거되엿든사실이 잇는데 그때그사실을 전긔판사 윤용섭씨가 경찰에 말하야 검거되엿든것이라고 원혐을품고 잇는일도 잇다고하야 어데까지 이번일은 당해뎐한사람으로 인하야 이러케 되엿다는것을 력설하엿다

당일의 변호사는 김용무(金用茂)김병로(金炳魯)윤태영(尹泰榮)심상직(沈相直)사씨외 대다박춘서(朴春緖)씨까지 모다 다섯분이엇는데 심리가끗난후 변호사측의 증인신청에대하야 재판당은합의한뒤에 채부를 결뎡하기로하고 오후에 다시개뎡하기로한후 정오에 폐뎡하얏다(오전령시삼십분경)

痴情과淫慾으로 兄嫂姦夫를打殺

═형수에게뜻을둔패리한시앗이 맛춤내형수의간부를때려죽여═

二審에서도死刑을求刑

함북명천군 상우북면쌍이동(明川郡上雩北面雙耳洞)리심석(李心石)(二五)은자긔의형이 죽은이후형수최을복(崔乙福)(三○)에게마음을두고 매양형수에게 동침하기를 간청하엿스나 형수는동리신명흠(申明欽)(四○)이라는간부를두고 리심석의간청을 거절함으로 심석은그간부를 따려죽여업새이면 형수가자긔에게 마음을 돌릴가하야 금년일월하순경에 전긔신명흠을 동리밧게서돌로따려죽이고 그의가진돈 이십여원까지 빼아섯다는 사실로청진디방법원에서강도살인죄로사형의 판결을밧고 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야 전번공판때에 피고는 첨대로그런일이업는데 경찰서에서 심문당할때에 지독한고문(拷問)을당하엿슴으로그때매에못견데여 업는사실을 잇다고자백하엿노라고사실을어데까지부인하엿스며 일부의 증거로보아도 피고의공술하는바가 사실일듯하야 자못의문의 사건으로잇서오던바 작이십륙일 오전에동법원 데칠호법뎡에서 말광(末廣)재판장의심리아래 립정(笠井)검사의립회로데이회공소공판을 개뎡하고 검사로부터역시사형의 구형이잇슨후 변호사리인(李仁)씨의변론이잇고폐뎡하엿는데 판결언도는 륙월이일에하리라는바 장차판결이 엇더케나릴는지 매우흥미잇는 사건이라하겟스며 피고의 가뎡은그곳에서 상당한재산까지 잇는주류이상의인민이라더라

馬賊團의跋扈

팔도구방면을습격한다고 당백현지사는토벌대조직

국경대안(對岸)당백현(長白縣)중국관헌은 방금엄중히 경계중이라는데그내용을듯건대평북후창군포평대안(厚昌郡浦坪對岸)인 당백현팔도구대양분구(長白縣八道溝大陽岔口)에서 마적(馬賊)두목 북해(北海)와 령산(靈山)이령솔한오십여명이집중하야 칠도구고려보자(七道溝高麗保子)로 이동하여가는 구룡(九龍)의일단과 합하야 팔도구(八道溝)를 습격코저 준비중에잇는까닭이라하며 이로 말미암아 십오도구(十五道溝)에 잇는 채목공사(採木公司)에서는지난이십사일부터 작업을 중지하엿다하며 중국사람을 다수히잡어감으로 일반은극도로 공황하야 조선안으로 피난중인데 당백현지사(長白縣知事)는 경찰대당리괴무(李魁武)를명하야 오십명의혼성토벌대(混成討伐隊)를조직하야 지난이십이일 아츰부터 토벌에 착수하엿다더라

子正後의京城

◇街上의人生과現實의一面◇ (二)

乞人은幕天席地! 花咲「車」中學生「蝶」

═첫새벽영우에는나올팔이무녀와장자는걸인 긔생이차고넘는자동차속에는정복입은학생═

第二驛종로네거리=暗行記者B

◇廿五日밤◇

둘재밤내여온 대경성에서도가장한복판 커자거리로도환락의거리로도 비로부터지금에일으기까지 첫손고락을꼽아오는종로네거리이다 빠는이십륙일오전한시 야시에「싸구료」소리도쇠잔하야지고 하로밤편히쉬일자리를차저가는사람들의 발자최도희소하야진다

◇한시십분경=홍동던차가마지막지내간후 보신각(普信閣)뒤와 재판소압칭칭한구석에로숙하는 걸인들의 코고는소리와 공평동골목으로부터주정군의호령소리 기생들의노래소리만 간혹들려나온다 그리자그골목으로부터 소복을한트레머리녀학생과 최신식하이칼라양복칭년한사람이 팔을서로엇결우고나온다 「녀학생이 이만빠커편데서커모양으로!」하고자세보니 그근리○○이란기생이녀학생행색을하고 청량오로더부러 태서관에서집으로도라가는길이란다 사진과가뒤를싸르는것을 알어채우고는싸러가는걸인에게 돈한푼을던저주고다방골로 빵순이를한다

乞人은幕天席地 花咲車中一學生

◇두시반경=이제는아조주정군과 탕녀의거리로화하고말엇다 이백십오호자동차가운뎐대에까지 기생을잔뜩실고남대문통으로부터 동대문통을향하고달려갓다가 한오분지나서기생한명과 남자한명은어듸다인지나려놋코 다시서대문통을향하고네거리를지나간다 경관은잡어세우고취테를한다 가슴을조리고잇든 손님과기생들은 「막네숨」터지는소리에홍비백산한다 경관의 손을버서난 자동차는 칭진동어구에일으러서 나머지기생들과 손님들을 부려놋코간다그들은 칭진동○○이란기생의집으로드러갓다 나종에듯으니기생은 형데라고한다 손님중한사람은 찬란한금단추를단학생양복의 칭년이엇다

普信閣裡便所邊 村婦女風餐露宿

◇세시경=보신각뒤공동변소뒤에는 야시에서풋나물들을팔고잇든촌부녀 십여명이팔다남은나물광주리를 제각기굴러안고행조초마자락을 뒤집어쓰고옹기종기뫼어안저서 코를골고자다가「막네숨」터지는 소리에잠을깨어「자긔네들은광주서왓는데 이삼일동안고생을해가며나물한광주리를 만들어가지고오든종일도보로 칠팔십리식이나와서밤새도록 팔다가못팔고로변에서 밤을자고나서는아침장을보고그래도 다못팔면골목골목으로도라단이며 팔어가지고집을나온지만이틀에야 도라가게되는데모다 팔어야고작일원이십전가량을 작만하나거게서접십커덕갑래왕선가 집신갑을제하고 나면사오일동안빼가싸지도록 번돈이라고는사오십전밧게남지안는다고 신세타령을한다

男子는妓生爭奪 妓生은男子爭奪

◇세시경=남대문통으로부터양○○강○○박○○마○○등의긔생이「쿠바시카」입은칭년외한명을다리고 네거리에일으러서 두남자를서로씻는다 맹렬한남자쌩기싸홈이다 그리다맛침내광평동쪽기생 두명이승리를하야 한남권번으로쓸고들어간다 빼앗긴편은 또차가서그러리마리 야단이난다풍금소리가요란히이러난다 화집에치는풍금인가 승리의깃븜으로치는풍금인가? 그리하는동안에세시삼십분이지나서 매성식당으로 부터남자오륙명과기생세명이나와서 이번에는기생닷들이한바탕일어나드니 관털동으로몰녀들어가 바리고만다

學士軍의出奉 關聖廟에朔奠

◇세시사십분경=발서동대문밧으로부터 오는야채구루마들이뎐동장야주개장을 향하고들어오기시작한다 기생들의 왕래는 조곰틈하야 졋다유룡봉출로 창덕궁에모히려가는려사군들이 사방으로부터네거리를거쳐간다 이날은유림으로보름날이엇슴으로 보신각직이는종각겻헤잇는 관성데군사당에분향할차로 제물과향불을들고보신각뒤로느러간다 던차차장은던수들이 동대문차고를향하고간다 이제부터는란잡한환락의막은차차 닷처진다(쯧)=다음은어듸?

◇길가에서밤새는촌부녀

京青幹部檢擧

검거의손은더욱확대

종로서고등계에서는 긔루보‖청년총동맹에서허일(許一)씨외일곱명을검거한이래비밀리에서엄중히취조를 하며일변으로 활동을계속중이라는데 재작이십오일밤에는 경성청년회간부김유선(金有善)(二八)씨를검거하야역시취조중이라는데내용은아직도비밀히하나이로부터도사건은더욱확대되여검거의범위는더욱넓어질모양이라더라

誘引이專門

신문보고범인알어

개성(開城)에본적을두고일정한주소도업시 경향으로 도라다니는한긔동(韓甚東)(三四)이란다리하나업는 병신이경성부림뎡(林町)하숙옥(下宿屋)민성호(閔聖鎬)의당녀 영숙(永淑)(一)이란소녀를쇠여 인천에와서 팔어먹으려든 사실이발각되여 인천경찰서에 데포되여 취조중이라한은과보한바어니와작이십이일아츰인천경찰서에는장단군남면거곡리(長湍郡南面巨谷里)칠백팔십칠번디윤자영(尹滋榮)이란사람이와서자긔는지난사월사일오후에 자긔딸상임(相任)(三)이를일허버린바 그후탐지한즉 그근처에와잇든한긔동(韓甚東)이란자가 유인하야 신의주 방면으로 다리고간 사실을 알게된후그자의 종적을찻든중 일전신문긔사로써 그자가 귀서에데포되엿다하기에 왓노라 함으로동서에서는 그자를다시 취조한결과 그는과연 상임을쇠여다가사리원(沙里院)모처모에게칠십원에 팔어가지고 주색에소비하엿슴을자백하엿슴으로동서에서는 더욱엄중히 취조중이며사리원에그소녀의 거처도 조사중이라더라(인천)

世界의飛行界

平壤機大邱發

데신국(遞信局)에 도착한뎐보에 의하면 대구를 출발한 평양대도세(平壤大刀洗)간의 당거리 비행긔 두채는 이십오일오후두시삼십오분에 엄원(嚴原)상공을통과하엿스며 대구에남어잇는세채가운데 두채도 동두시오십오분에 출발하엿스며발동긔고장으로 이십칠일오전구시에 출발하엿더라

丁抹機奉天着

이십오일에 행방불명이 되엿다는말이잇든 덴말(丁抹)의 방일(訪日)비행긔는 금조텰도(錦朝鐵道)와경봉선(京奉線)과의 교차뎜상공에서발동긔고장으로 봉시에착륙하야 두시간동안수리를하고 네시사십분에봉텬에도착하엿는데 어십칠일오전열시에 평양으로향할예뎡이엇섯는데 일은무사하엿더라 거기서곳치지못함으로 이십칠일에 출발하리라더라 (봉텬뎐보)

山頂과衝突

일본횡수하무작(舞鶴)으로향한 횡수하 해군항공대의비행선은 이십오일오전아홉시경에、무작요항부(舞鶴要港部)상수도수원디부근에서 안개로인하야 산꼭대이에부닷처서산산이부서젓는데 승조원여섯명은무사하엿더라

八字도崎嶇한 十七歲의少婦

═세상에어미죽고일곱에아비마저 시집갓스나남편죽고시어미죽고═

自殺도不果로警察에哀訴

시내종로서 보안계에는 방년십칠세의미인이 차커와 보호원을하얏다 그내용을듯건대 그는본래는시내통의동(通義洞)리환성(李煥聖)이란사람의딸로세살때에아버지를 여의고 일곱살때에 어머니 마저여인후 그종조부에게길우워나매 재동부속 보통학교(齋洞附屬普通學校)사학년까지단이다가 그종조부마저 세상을떠나게되니 학교도 퇴학을한후열다섯살되든해작년에엇던사람의 터문이업는말에 속아서인천사는리훈식(李勳植)(二三)이란사람에게 삼취로시집을 갓드니 시집간지 너달만에 남편이신경쇠약으로 세상을떠난후 홀시어머니와가치 고생사리를 해오든중작년가을에 시어머니 마저세상을떠나고나니 오고갈데가 전혀히 업서지고맙고 의복동속을 모조리 뎐당국에잡히어 홀로호구를해오든중 작년동지달에는 그만모든것을 잇고죽어 바리고자하는생각으로양재물을먹고죽고자하다가 죽지는못하고 목구멍만부어서 이제는밥도 먹을수가엄시되엿슴으로위선그병이나고처볼 작뎡으로오륙일전에 경성에올라와서데부동모녀학생긔숙사에가서부처잇다가하는수업시 그와가치보호를청한것이라더라

京春街道의殺人犯 托鉢僧金法成

═작년겨울경춘가도의살인범은 탁발승김법성으로판명되엿다═

疑雲重疊한昨冬事件判明

경긔도경찰부에서는 요사이 시내시외를비롯하야근긔각디방에수명의경관을 파견하야 모중대범인을 크게수색중이라는데 그내용은 긔보한바 작년십이월칠일에 시내동대문서관내인 동대문외경춘가도(京春街道) 칭계천데방(淸溪川堤防)에서 시골서온것가튼 주소성명모를 아동을 무참히살해하야 버린사건이잇슬그당시에 동경찰부를 위시하야 시내각경찰서에서 그범인을수색하는동시에죽은아희가누구인것을조사중이엇스나이제것아희도 확실히몰으고 또는그범인도알수가업서 지금에 일으러서는 경찰의수색도 한풀이써기엇든터인데 수일전에 그범인이 김법성(金法成)(三二)이라는중(僧)인것이라는것이 관명되는동시에 그범인이 지금양주군읍내면 안양사(揚州郡邑內面安養寺)에잠복해잇다는것을 탐지하고그와가치 대활동을 개시한것이라더라

【探偵의經路】 전긔와가치작년십이월칠일에발생된칭계텬살인사건이 만륙개월을지낸지금에야 비로소 범인을알게되엿스며 또는아직까지도 피살된아히는 누구인것을 몰로는주이라는때 그범인을 알게된단서는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칠십팔번디김정덕(金貞德)의집에서얼마전에 피무든옷을 내다가조선조히쪽으로 피를빼어내고 잇는것을 동리사람이 발견하고그것을이제야 경찰에서 탐지한바되엿다하며 그범인김법성은 그섬죄를하고 전긔김정덕의 집에한달동안이나 잠복하엿다가 경찰의수색이조금늣하짐을타서집을떠나다른데로간모양이라더라

體操하는電車

일자로늘어서서

작이십륙일 오전여덜시 이십분경에 데일칠칠호던차가 시내종로일뎡목 광화문우편국 압해서 탈선되야 승객들이 놀래뛰여나리는등일시 혼잡을 일우엇것다는데그로인하야 이십여대 던차가한곳에 몰리여동아홉시에 겨우복구되엿다더라

京釜線列車 前後二名轢殺

재작새벽두곳에서시톄발견

재작이십오일 오전세시경에 경부선 데삼십팔호렬차 게원이군포당수원(軍浦場水原)사이에서 록사된 조선남자시톄가 선로우에잇는것을 발견하엿고 동다섯시경에는 경부선 데삼십일호렬차가병뎜수원(餠店水原)사이에서 조선인남자의 시톄한개가 선로우에 잇는것을 발견하고현장에서 오분간뎡거를하고 시톄는모다 소관경찰서원에게넘기엿다더라

鐵道自殺未遂

시내죽첨뎡(竹添町)이뎡목이백사십사번디음식뎜리소사(李召史)집에서고용사리를하는 녀자 김련옥(金蓮玉)(二三)은작이십륙일오전두시경에 죽첨뎡텰도선로(鐵道線路)우에서자살을하려다가소관서대문서 순사에게 발견되야 그만뜻을못일우엇다는데그는다년간신병으로 고생하던끗해 세상을비관하고 그가치 자살하려고한것이라더라

日本硫黃山大爆發慘禍

水田의 蒙害만 五百五十萬圓

류실된셔재는 이십여만셕 被害家屋千六百餘戶

작보=이번일본북해도류황산의 폭발로 상부량야촌(上富良野村)의 과상중현단데(三股縣開館)의 부락의 피해가 매우심하다는중 그부근일대에 류실된목재는 이십만셕(石)이오 황정농댱(荒井農場)도 전부 탁류에 엄습을 바다져 우두호밧게 남지안엇다하며 탁류로 황폐된논(畓)의 피해만이 오백오십만원이상에 달할모양이라 하며 또한 그근처 일대가 전부 참상을 일우웟다 함에 대하야는 여러가지보고가 잇스나 이십오일 위치조사한 피해호수는 일천륙백호라는데 피해구역은 다음과 갓다더라(욱천뎐보)

荒井農場 二三五戶(四三二名) 始末農場 三七〇戶(人員不明)
三股開館 一四八戶(七七三名) 細野農場 七八九戶(人員不明)
第二三股 一三六戶(六六九名)

流失家屋二百 사상자부지기수

북해도당국으로부터 내무성(內務省)에 보고한 뎐보에 의하건대 이십사일오후네시반경에 십승악이 폭발되야 호수가 범람함으로 상부량야촌(上富良野村) 일대는 전부물바다가 되고 이십오일오후한시사십오분까지 판명된피해 중 류실가옥이 이백호요 시데가 오십여이며 뎐답피해가 약칠백뎡보로 그후도 계속하야 상부량야촌근처에 류실되는 가옥과 사상되는생명이 부지기수라고 하엿더라(동경뎐보)

濁流中에 沈浮하는 手足업는 無數屍體

만목처연한 참혹한광경

탁류중에는 보기에도 끔찍한 시톄가 수업시 뼛다잠기엿다하야 시톄를 수용하기에 매우곤난하다는데 시톄의 대부분은 손과발이 업서진 참혹한것으로 탁류에 섯거 가도즉시 진흙속으로 잠기여버리는 참상이 계속되는중이라더라(욱천뎐보)

屍體發見 百二十六 오리밧게도피해

폭발된 류황산으로부터 약오리가량되는곳에 잇는 동경산평류황사무소(平山硫黃事務所)에 종업원 오십명이 일하든중 그중사십명이 간곳이 업고 신면농장(新川農場) 근처의 소학생 칠십여명이 학교로 가든길에 전부 거처가 불명되야 아즉 이십오일 오후열시까지의 보고를 종합하면 발견된 시톄가 일백삼십륙이라더라

山麓에 新湖水 목하범람중

이번에 류황산이 폭발되여 동시에 십승악(十勝岳) 중턱(小腹)에 새로히 큰호수가 생기여 그호수가 터지며 방금 범람하는 중이라 마토사속에 뭇치인듯십다는데 상부량야 일대에는 참상을 일우엇더라(욱천뎐보)

呵鼻叫喚의 生地獄

피해자유족들의 우는광경 死傷者三百五十以上?

일본십승악(十勝岳) 폭발피해의 가장격심한곳은 공지천(公知川)의 외연안 상부량야(上富良野)인데 사람시톄가 밟밟히 쌔여져서 거리에 루루히 벌려노엿스며 아즉도 백여명의 생명이 리해(泥海)속에서 생사를 알수가 업서 유족들의 부르짓고 우는광경은 일대수라장을 이루엇는데 럽도선로는 약 이마일가량이 진흙속에 파뭇치어 고독히 죽은이 석자나되는 큰나무가 뿌리채 뽑혀나려와서 무수히 쌔엿더라

聖山公普校 生本社見學 上

維鳩公普校 生本社見學

전북옥구군(沃溝郡) 성산(聖山公普校) 성산공립보통학교 도와화부형 사십명은 동교 당임용재(作龍宰)씨의 인솔아래 재작이십오일오후에 본사를 견학하엿습니다 사진은 견학단일행

충남유구(維鳩) 공립보통학교생도 이십팔명은 재작이십오일에 동교 교원 박의화(朴義和)씨 외일인의 인솔아래 본사를 견학하엿습니다 사진은 견학단일행

因山을 압헤두고

純宗裕陵遷奉 昨日梓宮奉出

리왕직원 내시 고문시립으로 재궁을 봉출하야 침뎐에 이어

독심(纛島)에서 금곡(金谷)으로 이하내시(內侍)등이 재궁을 봉천봉하는 유릉(裕陵)천봉의 재궁봉출(梓宮奉出)은 시간을변경하야 이십륙일오전령시에 거행하엿는데 재궁을 모신지 삼십여년이나되엿슴으로 재궁에사 고가잇슬것을 념녀하야 수외지 을것을 준비하지하엿는데 만일 사고가잇다하면 약간 예정시간이 느질는지모르니 거(結果) 시경에 민(閔) 당관과 좌등(佐藤)사무관이 쑥섬으로 몬저가서 제반준비를 하고 엽한시반경에 조뎐(徐川)차관과 리(李)례식과장 과 지구(池尻)뎐사와 송사(松寺)어용괘가 자동차로 나가 고 고리라민후(閔后)의 어친척되는 민영찬 민영휘(閔泳徽)씨며 과리가 참여하야 개정각인 오후여섯시반에 지내리라 하며 침뎐성비(寢殿成備)는 내리라 하야 과립명정(立名旌)도뎡한 밤아홉 시에세우리라더라

內殿에 茶禮

리왕뎐하와 왕비뎐하께서는 유영휘(閔泳徽) 박영효(朴泳孝)씨 대비뎐하와 왕비뎐하께서는 유동내식고문관(內式顧問官) 동릉천봉재궁봉출하는자이 십륙도자동차로 나아가 열두시경에 일청오에 주다례(晝茶禮)를지나 고유(告由)와 사유제(事由祭)를 올고 망곡을 하옵것는데 종친과 엄숙히 맛치고 류해종(劉海鍾)씨 구신들도 입시하여 망곡에 참례하며 전사무관 리원승(李源昇)씨 엿더라

國葬行列員外의 奉悼行列禁止

일반의 봉도행렬은 금지요 로변봉도는 과계치안타고

인산봉도회와 봉도단에서나오는 렬원은 일대로하라치 안켓다고 며사군(肆士軍)과 잡색군(雜色軍)은 작일오전에 국우(國友)경무과당 국장행렬에 참가할 당원으로이발표하엿는데 일뎡한 당소를 로대여 소여신련사동동수작괴창 당하고 로변에서 봉도를하는 것은 관계치안켓다는 입서도 무방한 로대가든것을 거양할사람이나이 은 국장행렬에는 참렬 말만은하엿더라 박게이상여러가지 책임을 지지 안코 봉도회휵은 봉도단원으로 국장행렬에 참렬할 정식자격이 업는사람은 국장행렬에는 참렬 치못하고 행렬을 호위하는 행렬 최중긔 마경관대뒤로 따라 오는것 리왕직에서는 금지를 안한다 는의견을가지고 잇섯스나 경무국 에서는 국장행렬이외의 봉도참

琿春서도 奉悼 재류동포들이

간도 훈춘현(琿春縣)에잇는 동포 들은 순종효황제 인산 당일오전 열시에 그곳 조선인민회관(朝鮮人民會館)에 모히여 봉도식을 봉행하리라는데 준비위원은 다 음과 갓다더라(훈춘)

金川明、朴載英、金泰鎬、金翰、金弼樹、徐丙學、李熙來、金德賢、崔河金、李亨來、金寄寬、鄭匡燮、李圭昌

大妃殿下는 樂善齋로 移御

인산이 지난후 지금 락선재(樂善齋)에게 신왕뎐하께서는 대조뎐(大造殿)으로 이어하옵시고 대조뎐에 게시든 왕대비뎐하께서 락선재(樂善齋)로 이어하시게 될터인데 왕뎐하께서 동경으로 가시더라도 당분간은 귀경하실 준비를 하여두리라 하며 이동안에 대비뎐하는 그 낭락선재에게 시게되리라더라

奉悼를 勸誘 간도봉도회에서 뎨육회에 대해

간도룡정촌(龍井村)에 잇는 동포 들은 이전에 망곡회를하고 오는 인산당일에는 봉도회까지 조직 하야 방금 여러가지로 분망하는 중 간도뎨육회 (間島敎育會)에 이십륙일부터 사흘동안 전간도 족구대회를 열게되여 벌서여러가지 준비가 다잇는바 봉도회에서는 여러번 뎨육회에 연긔를 권고하엿스나 여러가지 하며 그정경이 매우가긍하다더라

嗚動休止

폭발된후로 계속하야 울던 십승악(十勝嶽)은 이십오일오전여섯시에 겨우명동(鳴動)을 긋치엿다더라(욱천뎐보)

列車의 衝突로 八十五名死傷

이십오일아츰에 독일(獨逸) 베르린으로 진행하던 려객렬차는 동명거당에서 뎐기를하다가 다른렬차와 충돌되야 사자이십오명과 부상자륙십명을 내엿다더라

土地에 假處分當코 詐欺罪로 告訴

차금위탁햇던 사람들 거러 고창경찰서에 고소를 메괴

問題된 時價三萬圓의 土地

지난십팔일경에 전북고창군 청송면산수리 뎡휴탁(鄭休鐸)와 고창군 홍면수리(興德里) 동휴탁(高敞郡星松面水里)의 권남령광군 대마면원흥리(靈光郡大馬面元興里) 김대형(金大衡)와 고창군 성송면무송리(高敞郡星松面茂松里) 강훈(姜薰)와 조하야 고창경찰서에 고소를 데괴 하는 동시에 동서에서는 강훈을 인치취조 하는 동시에 지난 이십일일에 령광읍내 뎡태홍(鄭泰弘)을 호출하야 취조한다는데 그내용은 전긔 뎡휴탁은 금년 이월경에 청송면일대에 잇는 권농회사(勸農會社)의 논팔십여두락을 판다는 말을 듯고 매입(買入)코자하는 데 돈이 부족함으로 빗을 어드려 하든차에 전일부터 친면이 잇든 전긔 김대형과 강훈 두사람이 빗을 어더준다 하야 지난 삼월사일에 세사람이 가치 령광읍내로 가서 채권자될 허권이란 사람을 차져 가 그곳에서 하로밤을 지냇스나 허권은 오지아니함으로 뎡휴탁은 자긔집으로 도라가려한즉 전긔량인은 가게 거든 빗엇는 데에 위임장(委任狀)을 해주고 가라 함으로 위임장을 해주고 자긔집으로 도라갓든바 지난 사월이십 일부터 돌연히 령광읍내 허권으로부터 령광군대마면(靈光郡大馬面) 일대에 잇는 뎡휴탁의 토지가 삼만여원어치에 가처분을 당하엿슴으로 뎡휴탁은 그후 허권이 란 사람에게 피차간 생면부지의 처디인데 무슨리유로 가처분을 햇느냐고 내용증명을 보냇든바 허권은 뎡휴탁과 전긔 량인이 그 계약을 데결하엿는데 그 계약내용은 전긔 고창군 성송면 무송리 강훈 과 조하야 그토디 전부를 채권자에게 배상 하는대로 위임장이 잇슴으로 그 계약을 리행하기 위하야 가처분을 햇슴으로 토디전부를 인도한다고 위임장을 보냇슴으로 그제야 그들에게 속은줄을 알고 전긔와가치 고소 를데긔한것이라더라(령광)

無識本夫를 排斥

십팔세된녀자가

경남함안군대산면산서리(咸安郡代山面山西里) 황정관(黃正官)의 딸 귀봉(貴奉)(一八)이라는 녀자는 그동리 박차용(朴日川)이 라는사람과 작년팔월에 결혼하 엿든바 본부간에 정이업서서 자미스럽지못한 가정을 이루어오 든바 금년부터는 무슨리유인지 전긔 귀봉이 가다른남자와 교제가 만코 야간에도 주야지 한일도 무 차잇섯든바 지난십팔일에는 남 편이 무식하다는 리유로 나논당 신과 살수업다하고 그만 자긔의 친 뎡으로 가버렷는데 전긔 남편인 박차용은 지난이십일에 당디주재 소에 설유원을 데출하고 호인당시 의 비용과 지금까지 생활비를 칭 구하고 리혼하엿다더라(함안)

富豪에게 脅迫狀

피의자로 구당을 검거 취됴

지나간 오월삼일 평남안주군연호면(平南安州郡燕湖面) 부호 안긔봉(安基鳳)에게 주소불명한 최대연(崔大淵)(二五)이라는 녀자가 그곳에서 유식 뎡을 하고 련명하나 생애가 변변치못한것을 괴화로하야 강화 (江華)로 가면 상당히 돈을 벌수가 잇스나 자긔하고 가치 가면 그곳 에가서 돈잇는 사람에게 사정을 말하고 자본금을 어더서 주상영업 을 식혀주마하고 달금한말로 쇠 여가지고 오월이십일에 강화로 와서 읍내에 잇는 강일려관(江一 旅館)에다 두고 당디부내면궁화 리(府內面菊花里) 리근직 (李根 稷)이라는 옥식뎜하는자에게 팔 려고하엿스나 전긔 두녀자는 아 모리 생활이 곤난하야 이모양으 로 도라다닐지 안는다 남의 집에는 팔려다니지 안는다 고하여 비로소 전긔 김창배란자의 요인에 빠진줄알고 매우분개하 야 서로 울면서 박천까지 이러낫는데 김 창배는 고만 당디 경찰에 잡히고 전긔 두녀자는 려관에 밥갑은 차치 하고 집으로 도라갈 려비조차 한 푼도 업서 두녀자가 서로 붓들고 울 기만한다는데 더구나 전긔 고씨는 여섯 살 된 딸 하나까지 다리고 왓다

婦人二名을 誘引

범인은 취됴중

경의선 남천역(京義線南川驛)에 사는 정창배(金昌培)(三二)란자는 그동리사는 박뎡밀(朴貞密)의 처 고씨(高氏)(三○)와 뎡길선(鄭吉 仙)(一九) 씨 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뎐긔 두녀자를 꾀여 자긔 와서 려관에 두고 여러 부인에게 팔 고 부인은 안 간 다는 뎐 에서 사건의진상은 아직 알수가업다더라(안주)

日人과 共謀하야 獨逸紙幣로 詐欺

대구서각방면으로활동중

대구경찰서에서는 수일전 부터 하면 경남에 원적을두고 대구에 천(泉)수색반주임이하 수명의형 사가 경성방면과 경남협천방면 본뎡(京城本町) 일본사람장사 명과공모하야 독일(獨逸)지폐로 에출장하는 한편으로 부내각처 에 쎗치어 심상치아니한 활동을 계속하야 협의자 이십명을 검거 하엿다는바 어사건에는 서성뎡(西 城町)모의원의 의생(醫生)도관 하고 어느중취조중이라는데 사건 의 내용은 비밀에 붓침으로 아직 자세하지 아니하나 듯는바에의 하면 [illegible] 련된듯하다더라(대구)

博川에 又復怪火

원인불명의 불이빈빈

지난이십이일 오후일 한시에 평북박천(博川)읍내 리삼주(李三 柱)의 집에서 불이 이러나 한때에 는대소동을 이르켯스나 소방대 의활동으로 열두시에 이르러 진 화되엿스나 원인과 손해는 미상 하다하며 거월십팔일 부터 삼십 일까지 네차례나 이와가튼 불이 이러난 일이 잇서 일반 인심은 매우공포중에 잇다더라(박천)

運送部에 火災

손해 만여원

평남개천역(平南价川驛)에 잇는 고교운송뎜(高橋運送店)은 지난 이십사일 밤두시경에 불이 널어나 서맹렬히 탐으로 소방조(消防 組)와 시민 전부가 달녀가서 진화 에 로력하엿스나 원내 화광이 충텬 하야 여러시간동안을 계속함으로 관구운송뎜(坂口運送店)까지 연 소되여 손해가 무려 만여원에 달한 다는데 불난원인은 동운송부창 고 유지(油紙)를 만히 싸두엇든곳 에서 자연히 발화하야 불이 이러 난것이라더라(개천)

男女百餘名이 檢事局에 殺到

북청광제사원

함경남도 북청(北靑)에 잇는 진 남포광제사 북선총지사원(鎭南浦廣濟社北鮮總支社員) 일동은 그의 입부금(入部金) 칠천여원을 찻고저하야 대표자 당영호(張栢浩)(?) 윤성호(尹聲浩)주순석(朱淳 錫)외 두사람 전무 취데역 리규호(李圭鎬)에게 동지사 전무 협(?)세사람을 식히여 동사 를 걸어 고소까지하엿든바 동사 건이 검사국에 넘어간지 벌서 오래 되여도 아모소식이 업슴으로 전긔 부원 일동은 지난이십일에 부원 대 회를 열고 그동안경과 보고가 잇슨 후 백여명의 군중이 검사국으로 달 려가서 검사에게 그 사건을 엇지 하야 아즉 처결하여주지 안느냐 고 질문코저 하는데 검사로부터 일동에게 잘처리할터이니 념녀 말라고 취유하야 모다 도라가는 길에 다시 북청경찰서원이 달려와 서 일동을 해산식히엇더라(북청)

馬山에 狂犬橫行

야견을박살중

마산부(馬山府)내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미친개가 자조 낫타나서 만흔사람과 개를 무러 상케한다 는데 지난이십삼일 오후네시경에 당다수뎡(?)한 경팔(韓敬八) 의 축견(畜犬)이 원뎡(元町) 최도 리(?)의 아들뎡감(?)과 이십사일에는 통뎡(通町) 중무렵 지조(中務鐵之助)의 사견(飼犬)이 이뎔도관사(鐵道官舍)에 가르는 개두머리를 교상(咬傷)식힌후 길 거리에 도라다니면서 요란케한 다는바 이 소식을 들은 마산경찰서 에서는 경관을 파송식혀 박살하 엿다하며 경찰당국에서는 야견박 살(野犬撲殺)을 단행하기로 하는 동시에 축견의 예방주사를 이십 륙일칠팔양일간 실행하기로 하엿 다더라(마산)

◇모임◇

◇傳道會 병인긔념뎐도회(丙寅紀念傳道會) 주최로 큰 뎐도회를 개최한다더라
時日 五月二十七日(木曜)午後八時
場所 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
演題 丙寅年의 先天
演士 金永濟氏